

추석감사예배

인도자(가정의 가장 혹은 신앙의 세대주)

예 식 사 ····· **인 도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추석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 **다 같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103:2)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 추석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명절을 맞아 흩어져 있던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같 이**

교 독 문 ····· **105번 감사절(1)** ····· **다 같 이**

기 도 ····· **가 족 대 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필요한 비와 햇빛과 바람으로 곡식을 익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히 북한의 핵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사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 **고린도전서 5:7~8(신약 268면)** ····· **가족중에서**

설 교 ····· **가 족 대 표**

제목: 명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은 풍성함과 감사를 나누는 귀한 절기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겼다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을 지키는 방법과 우리 민족이 명절을 지켰던 방법은 거의 같았다. 다만 그 대상만 달랐을 뿐이다. 우리 민족은 조상과 달에게 감사했지만 이스라엘민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 참된 신앙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명절을 지켰는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도 해마다 명절이 찾아오면 3가지 방식으로 명절을 지켰다. 첫째,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대하30:21). 둘째,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출12:20). 유월절과 같은 경우, 어린양을 잡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었다. 셋째, 가무를 즐겼다. 명절(하가그)라는 날말 자체가 춤을 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민족도 해마다 정한 명절이 찾아오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제사를 드렸으며,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가무를 즐겼다.

그럼,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2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출12:14).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한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켜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손들에게도 그 뜻과 의미를 전수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에게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감사하기 위해서였다(대하30:22).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어 곡식과 과일과 기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사탄마귀로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건져내어 우리를 속죄하신 뒤 천국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명절은 신약에 들어와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째, 해마다 드리는 명절에서 매주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다(행20:7, 고전16:2, 계1:10).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명절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둘째, 희생제물이 말씀으로 바뀌었다(고전5:7). 이제는 더 이상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께 마지막 제사로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식은 주일만찬이나 식사 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무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예배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제 첫째,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을 사용하지 말자다(고전5:8a). 여기서 묵은 누룩이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며,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은 잘못되고 와전된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결함과 참된 진실함의 떡(말씀)으로 주님을 섬기자. 그것은 바로 주일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킨다. 우리는 매주일의 명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자 기쁨의 통로와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매주일이 말씀의 잔칫날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쁨의 축제날이 되도록 늘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기　　도 ····· **인 도 자**

오늘 우리 민족에게서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추석에는 주일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주일을 명절처럼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　　송 ····· **찬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다 같 이**

폐　　회 ·····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배를 마치면 지난 상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 송편 등 추석음식을 나누어 먹고,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다집니다.

2018년
추석감사예배



회개와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탄명성교회

담임목사 정 병 진

18455 화성시 동탄반석로 120, 8층(반송동, 제일프라자)

☎(031)613-2001, 374-1009, https://DongtanMS.kr